

기나긴 장마에 잇단 살인·사망사고...지역민 우울감 높다

수해·묻지마 범죄·택배 괴담 등 불안감 가중, 트라우마 호소 늘어 광주·전남적십자 올해 재난 상담 465건...정신적 고통 해소 필요

장마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살인·사망사고 등 불행한 소식까지 잇따르면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광주 시민이 늘고 있다.

역대급 장마에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서울 신림동 '묻지마' 살인사건, 대만발 택배 괴담 등 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불안감이 가중해 지역민들이 우울감과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다. PTSD는 전쟁·고문·자연재해·사고 등 심각한 외부 스트레스를 겪은 뒤 나타나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리킨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올해 1월부터 7월 중순까지 광주·전남을 통틀어 465건의 재난 관련 상담이 이뤄졌다고 25일 밝혔다.

센터에는 5월 24건, 6월 41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7월 중순을 기준으로 벌써 37건의 상담 요청이 접수됐다. 센터 측은 7월 이후 최종 집계를 하면 상담 건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립나주병원 호남권트라우마센터 또한 재난 경험자에 대해 2021년 132건, 2022년 94건을 대면 상담한 데 이어 올해는 7월까지만 벌써 76건을 넘겼다.

상담 건수는 전반적으로 대형 재난이 발생하는데 맞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이용 건수는 2018년 8601건, 2019년 1만 100건 수준에서 2020년 1만 4423건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광주·전남지역 대규모 수해가 겹치면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후 학동 참사와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태원 참사 등이 잇따르면서 2021년 1만 5809건, 2022년 1만 5130건 등 상담 건수가 늘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또한 2020년에 1813건으로 상담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2021년에는 1339건, 2022년에는 1717건의 상담이 이어졌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처럼 사회적 재난 소식을 많이 접하다 보면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재난 소식을 접하고 우울함이나 상실감, 절망감, 두려움 등이 이어져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즉시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31일 '이태원 참사' 이후 PTSD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과 비슷하다. 당시 참사 현장에 있었던 이들 외에도 SNS와 언론을 통해 참사 현장 영상 등이 유포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장마 기간이 길어진 것도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용성 한마음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은 "장마로 인해 햇볕을 못 보고 야외활동이 줄면 우울감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난다"며 "야외에서 사회적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요즘처럼 안 좋은 사회적 재난 뉴스를 잇따라 접하다 보면 우울감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체불명 해의 소포 수거 화순경찰과 화순소방 직원들이 지난 24일 화순군 화순읍의 한 아파트에서 "정체불명의 해의 소포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포를 수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또 서울 신림동 살인사건 등 폭력사건의 보도가 늘어난 것도 우울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어릴 적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 등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잘 침투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우울감을 방지하면 자율신경계가 영향을 받아 혈압, 당뇨 조절이 어려워지는 등 질병으로 고착화될 수 있으며, 우울감이 만성화되면 치료

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광주시 등이 운영 중인 PTSD 치료와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우울감으로 치료가 필요한 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우울감이 느껴질 땐 24시간 핫라인 상담전화 1577-019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며 "또 우울 및 스트레스 자기관리 홈페이지 '마음뽀짝+'(www.bbojjakplus.kr)을 통해서도 자신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묻지마 살인사건'에 호신용품 구매 급증

"신림동 사건처럼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범죄가 무서워 삼단봉이라도 하나 가방에 넣고 다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경훈(29)씨는 지난 24일 인터넷에서 호신용품을 검색해 삼단봉을 구매했다.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변화가에서 발생한 '묻지 마 흉기 살인' 사건을 접한 후 대비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다.

이씨는 "처음 전기충격기를 구매하려 했지만 10만원을 넘는 가격에 1만 6000원짜리 삼단봉을 선택했다"면서 "친구들이 '남자가 뭐 그런걸 쓰냐'는 반응을 보이지만 위험에 대비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림동뿐 아니라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서도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씨처럼 광주·전남에서도 호신용품 구입이 늘고 있다.

삼단봉·전기충격기 등

광주·전남 주문량 5배 ↑

젊은 남성들 검색어 1위도

25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온라인에서 호신용품(삼단봉·전기충격기·후추스프레이 등)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확인한 결과 신림동 참사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도 호신용품 주문량이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림동 사건 직후인 지난 22일 네이버 쇼핑몰 '트렌드 차트' 순위를 보면 20~40대가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는 '호신용품'이었다.

주간 트렌드 차트에서 30대 여성도 '호신용품'이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그 외의 모든 세대에서도 '호신용품'이 5위 내에 들었다.

특히 최근 흉기사건으로 20~30대 건장한 남성이 범행으로 숨지거나 다쳤다는 점에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다양한 호신용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장 지난 22~25일 네이버 쇼핑몰 트렌드 차트에서 20대~30대~40대 남성은 '호신용품'을 가장 많이 검색해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10대~50대 남성에서도 '호신용품'이 검색어 순위 2위에 올랐고 10위권 내에 삼단봉, 전기충격기 등이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최근 흉흉한 사건이 많아 호신용품 하나쯤은 있어야겠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다이상 치안 1위 나라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쉽게 구비할 수 있는 호신용품 하나쯤은 가지고 다녀야겠다'는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수사 무마 조건 고액 수임료 의혹 경찰, 양부남 구속영장 재신청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21일 재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아직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주변 계좌를 추적해 전체 수

임료 2억8000만원 가운데 약 9900만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월 30일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반려했다.

경찰은 먼저 해당 사건을 맡아 양 위원장에게 연결의 의혹을 받는 A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A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양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건 수임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